

태양광, 학교옥상 설치로 일거양득

강원도, 초·중고 500곳에 30MW 설치 결정 ... 절감비용 359억원 기대

강원도가 초·중·고등학교 500곳에 3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 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080억원을 투자해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에 15년간 태양광발전소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0MW는 3년간 약 3500만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1만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고 잣나무 360만그루, 휘발유 960만리터,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1만3500톤을 감축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 및 학교시설 유지·관리 절감비용이 3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소유권을 학교로 이전해 298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사업자는 옥상, 스탠드, 주차장 등 교내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와 판매수익을 학교에 지급할 예정이다.

태양광 모듈에서 태양광 직류 전기를 생산한 후 인버터에서 교류로 변환해 한국전력공사로 송전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미 도내 학교 76곳과 10개 기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일일 4000kWh, 연간 15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이투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07>